

창문이 사라지고 있다



서 선 미 역

기후에세이

어느 날 늘 바라보던 풍경이 암흑으로 변했다. 창문은 있지만 창문으로서 역할을 포기했다. 창문을 투과해 들어와야 할 빛이 사라졌다. 열기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서울의 주요 도심마다 경쟁적으로 들어서고 있는 대형 전광판 이야기다.

‘공기나 햇빛을 받을 수 있고, 밖을 내다볼 수 있도록 벽이나 지붕에 낸 문’, 창문의 사전적 정의이다. 최근 광화문이나 명동 일대에 설치되는 미디어 파사드 중 일부는 창문 전면에 세로 줄 형태의 프레임이나 구멍이 뚫린 메시형 LED를 사용한다. 설치를 주관한 이들은 프레임 사이로 햇빛이 통과되어 창문 전체를 막지 않았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현행 법도 사무실에 일정한 밝기만 요구할 뿐, 햇빛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이들 대형 전광판이 규제를 빙거 설치될 수 있는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가능케 하고 있어서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면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디지털 옥외

광고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목적 아래 모양과 크기, 색깔과 설치 방식에 있었던 규제가 크게 완화되었다. 최근 광화문에 설치된 전광판은 건물 외벽 전체를 LED로 감싸고 있다. 말 그대로 미디어 월이다. 거대한 몸집과 번쩍이는 인공의 눈으로 우리를 대상화하고 있다. 전광판 건네에 머무는 사람들은 전광판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눈맞출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전광판 앞 사람들도 스크린의 시선에 갇혔다. 육중한 미디어의 벽이 도시를 압도한다. 유현준 건축가 역시 자신의 유튜브 매체에서 대형 전광판을 도시미관을 해치는 빛공해로 규정하며, 고개만 들면 미디어 정보가 쏟아지는 도시에서 시민들에게는 안 볼 권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시민들의 불편에도 아랑곳없이 대형 전광판은 우후죽순 늘고 있다. 대나무밭에 쏟아지는 거센 비와 같은 존재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 정부다. 자유표시구역에서 전광판을 설치한 건물주는 일정 비율 이상 공공 콘텐츠를 송출할 의무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 건물주와의 삼각판대가 도심에 인공빛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

도시의 거리와 광장은 모두의 것이다. 그 모두에는 전광판 너머, 전광판 앞 그곳에서 머물거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의 제도는 특정 산업의 성장이나 광고산업의 필요성, 정부 정책의 일방적 홍보를 위해 모두를 객체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규제 개선은 특정 산업과 특정 건물주, 돈 많은 광고주, 홍보가 필요한 정부를 위해서만 쓰여서는 안 된다. 건축물과 인간의 조화, 거리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창을 통해 날씨를 보고 싶은 사람들을 향해야 한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통해 하늘과 조우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가닿아야 한다.

법이 말해야 한다. 채광은 장시간 상주하는 인간의 최소한의 건강권, 생체 주기 유지, 쾌적한 실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대형 전광판을 설치할 경우 사전에 빛 환경 영향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시민은 ‘규제를 쏜다’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시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 도시와 건축물이 누군가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 법이 말하는 공공복리가 아니다.

‘지금 바람의 온도는 어떠한가요?’ 나는 망설이며 질문한다. 거리 건물들의 대형 전광판 안쪽 어둠에 갇힌 노동자에게 나의 망설임은 전해질 수 있을까. 전광판이 만든 어둠과 열기가 미로가 되어 그이의 하루를 해매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정책전문위원

국내 제약바이오, 어항 밖 큰 물고기의 시대



기지 수첩

이 청 하

(유통&라이프부)

물고기를 잡았다 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살 수 있다고 했다. 오랫동안 내려온 이 격언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현주소를 짚어낸다.

기존 성공 방정식은 국내 연구진이 발굴한 초기 후보물질을 글로벌 빅파마에 넘기는 기술수출을 통해 마일스톤을 확보하는 데 치우쳐 있었다. 이에 비해 최근에는 단순 연구개발 단계를 지나 상업화에 이르는 산업 전반에 걸친 발전을 이뤄냈다.

HLB그룹은 올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허가 신청, 허가 획득 등 일련의 과정에 직접 부딪치며 성과를 내고 있다. 해외 바이오텍에서 파이프라인을 도입했고, 국내 기업

으로는 처음으로, 항암 신약 ‘리픽투’를 앞세워 품목허가를 받으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높은 문턱을 넘어섰다. SK바이오파의 경우에는 일찍이 미국 현지에서 국산 신약 ‘엑스코프리’로 창출한 현금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차세대 신약 후보물질 ‘오파칼림’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모두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물고기 잡는 법을 체득해 나가는 모습이다. 특히 개발 후보물질 탐색부터, 임상, 허가, 상업화 등에서도 자체 역량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스스로 낚시대를 쥔 지금이야말로 낚들에게 쉽게 잡히거나 길들여지지 않을 독보적인 파이프라인을 키워야 할 시점이다.

물론 국내 기업의 독자 기술이 반환되는 소식이 들릴 때는 제약주와 바이오주는 단타성 돈벌이 수단으로 폄하됐고 주가는 늘 널뛰기를 반복한다. 다만 이때 낚시를 잘한다고 해서 여정이 끝난 것은 아니다. 수출 실적

이 주가라는 작은 어항 속 성장에 만족하지 않았으면 한다.

숫자와 사실만을 좇는 기자의 눈에도 당장의 신약 개발은 손익계산서의 수치로만 평가받는 것처럼 보인다. 때때로 시장은 신약의 본래 가치를 알아채지 못하고 돌아서기도 한다. 시장의 그 차가운 눈총에 일회일비하는 조급함이 아닌 더 큰 물고기가 되어 바다를 유영하며 써 내려갈 K제약바이오의 서사에 숨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긴 호흡과 신뢰가 필요하다.

수많은 시련과 성장통을 딛고 끝내 국산 신약이라는 물고기를 키워낸 기업은 마침내 ‘그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신약의 약물 가치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며 쓰임 받을 때 초기 개발 비용이나 실적으로만 평가받지 않고 인류의 삶을 구한 영원한 이야기로 남아 불멸한다.

/mlee236@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6일 (음 8월 26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취

48년생 공허로운 재물을 탐하지 마세요. 60년생 술집 가까이 가지 마세요. 72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습니다. 84년생 시기가 맞아 떨어져 이루려는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소

49년생 하는 일이 마음과 같지 않습니다. 61년생 만사가 대길 할 운세입니다. 73년생 스스로를 조절할 줄 아는 실력을 갖추세요. 85년생 능력이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로랑어

50년생 옳지 못한 생각은 가지지 마세요. 62년생 실업자 생활을 청산할 때가 왔습니다. 74년생 밖으로 나가면 귀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86년생 대수롭지 않은 병이나 절을 수록 조심하세요.



도끼

51년생 친목을 돈독히 한 덕을 볼 수 있습니다. 63년생 방해하는 것이 없으니 막힘이 없습니다. 75년생 불안한 거래이더라도 이루어집니다. 87년생 잃었던 것을 찾게 됩니다.



조

52년생 화해로 해결하려 하지만 어렵습니다. 64년생 어려운 일이 닦혔을 때는 도와주는 이가 없습니다. 76년생 최악의 상태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88년생 부채로 부도 위험이 있습니다.



뱀

53년생 입무를 볼 때 주변의 반대가 있을 것입니다. 65년생 분수에 넘치지 않는 행동만 하세요. 77년생 복록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게 됩니다. 89년생 하찮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세요.



말

54년생 유익한 거래가 이루어 지겠습니다. 66년생 원수로 돌아설 듯하나 결국 화해합니다. 78년생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90년생 좋은 취직 자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

55년생 아마도 여성의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67년생 분실한 물건이 있다면 여성의 소행일 것입니다. 79년생 귀인은 동쪽이나 북쪽 방향에 있습니다. 91년생 합격 수가 있습니다.



원숭이

56년생 계획성 없이 일을 해 나가니 모든 것이 엉망입니다. 68년생 오늘 하루 뜻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80년생 위독한 상태까지 가게 되니 주의하세요. 92년생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닭

57년생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마세요. 69년생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81년생 가까운 사람이 곁을 떠납니다. 93년생 상대방의 마음이 이미 떠났습니다.



개

58년생 친구와 싸우지 마세요. 70년생 모든 일이 발전 일로에 있습니다. 82년생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기에는 최적 기입니다. 94년생 뺨사람에게 자문을 구하면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돼지

59년생 쉽게 찾을 수 없으니 단념하는 것이 좋습니다. 71년생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마세요. 83년생 욕심을 버리고 현재의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95년생 우정을 돈독히 하세요.



김상회의四季

복성귀인(福星貴人)

사주명조를 살필 때 길신과 희신이 한 기둥에라도 있게 되면 인생의 고비가 다칠 때 그래도 수월하게 넘어가는 힘을 얻는다. 복성귀인(福星貴人)은 뜻 그대로 복록과 생활의 안정의 기운 등으로 삶의 전반적인 풍요가 두드러지는 길신을 의미한다. 특히 복성귀인이 있게 되면 남자의 경우 현처를 만나서 처복 있다는 소리도 듣고 직장에서도 상사로부터 인정받고 승진도 무난하게 이루는 힘이 강하다. 여자의 경우, 여자들의 사회진출이 거의 없었던 전통사회에서는 남편으로 인해 신분 상승 등의 인복이 엿보인다.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는 여성들도 고등교육과 사회진출이 당연시 여겨지니 사회적 또는 직장내 고위급 출세도 기대할 수 있다. 복에도 다양한 종류의 복이 있지만, 무엇보다 복성귀인은 재물보다 인간관계에서의 인복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해석된다.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행운이 심심찮게 발견되고 흑여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귀인의 도움으로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만나는 주변의 도움을 받게 되어 인복이 많다는 소리를 듣는다. 다른 말로 복덕 성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태도도 진중하고 신의가 있는 성정을 지닌 이들이 대부분이다. 즉, 그들의 평소 품행이나 행동 양식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었다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 호들갑스럽지 않고 실질적으로 성품이 모나지 않으며 원만한 경우를 느끼곤 한다. 사주팔자에 천을귀인, 천복귀인, 그리고 태극귀인이 대표적인 복덕귀인, 즉 복덕성을 나타내는 길신들이며 천덕과 월덕이 있는 것도 역시 복덕성의 기운으로 본다. 이 중 하나만 있어도 도움이 되거늘, 흑인은 2개가 있기도 한데 이럴 경우는 위기가 올 때 회복력이 배가된다. 복덕 성이 있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인덕이 좋으며, 일주와 시주에 있다면 말년의 반드시 편안하다고 보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07호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11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신작 기획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스도쿠

결란스도쿠110

문제출제: 손호성

서울은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2	7	2	8	9	6	8	1
2	8	8	6	2	1	9	7	9
1	6	9	8	7	9	2	2	8
8	1	9	7	2	6	9	8	1
6	9	2	1	8	8	7	2	9
8	7	2	9	9	2	8	1	6
9	2	8	2	6	8	1	9	7
7	9	1	8	9	2	2	6	8
2	8	6	9	1	7	8	9	2